



# 등록제도 정보공유 각국 협력 강화 인식

대만 협회 주관으로 Sheraton Taipei Hotel에서 열려  
차기회의, 2012. 10. 17~19 일본 도쿄에서 개최

제27회 한·일·대 3국 작물보호협회 회의가 지난 11월 3일(목)부터 4일(금)까지 이틀간 대만 쉐라톤 타이페이호텔에서 개최됐다.

대만구식물보호공업동업공회(TCPIA)가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3국협회 공식 대표단 18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작물보호협회(KCPA)에서는 한태원(韓泰元) 회장의 5명, 일본농약공업회(JCPA)는 Kenjiro FUKUBAYASHI(林 憲二郎) 회장의 5명, 대만구식물보호공업동업공회

(TCPIA)는 Liao, Carl L.H(廖年亨) 이사장 외 5 명이 참석했다.

3국 회장단은 인사말을 통해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 전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경지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식량자급률 하락을 우려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 영향으로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식량부족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지만, 3국이 농약관련 등록제도 변경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각국 협회의 협력 강화가 그 어느



▲ 3국 회장단(왼쪽에서 세번째 한태원 회장)



▲ 감사패를 수여한 영병만 전회장

때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대만협회 Mr. Chang Chung-Li 국제위원 회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회의의 각 국가별 주요 정세 보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작물보호협회(KCPA)**는 기상 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 식량자급률 재설정,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활성화, 농약관리 법 개정, 소비자 및 농업인 교육 등에 대해 발표 하였다.

농업환경은 한반도가 과거 100년간 1.7℃상 승하여 지구평균온도 0.7℃보다 2배이상 상승함 에 따라 작물재배 지역이 북상하고 돌발병해충 및 외래잡초 증가로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 장기본법 시행과 농업생산 인프라 유지 및 확보, 내재해성 품종개발, 돌발병해충 및 외래잡초 방제 강화 등 농업분야 주요 대응책을 소개하였다.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에서 사료제외)은 2010년 54.9%에서 2015년 57%로 상향조정하였고 2012년까지 GAP를 활성화하여 유통농산

물의 10%, 재배면적의 4%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약관리법 개정에서는 천연식물보호제 신설, 제조업자 등의 판매관리인 지정교육 강화, 우수농약 개발, 보급지원 근거 신설, 미등록 농약수입, 판매근거 신설, 통신판매 및 청소년에 대한 판매금지 조항 신설, 미등록 농약 제조·수입·관리·진열·판매 금지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협회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경영인 농약안전사용 Master’ 및 ‘소비자파워유저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용’ 교육을 소개하면서 소비자에게는 농약의 역할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제고하고, 농업인에게는 올바른 농약사용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 및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협회의 노력을 발표하였다.

**일본농약공업회(JCPA)**는 정세보고를 통해 농업취업인구 및 농가호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60%가 65세 이상으로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쌀 소비량은 감소추세이고 채소생산은 축소되고 있으며 과일은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해일로 인한 염해피해는 3개현에서 2만3천 헥타르로 농지의 2.6%를 차지하였다.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 오염 대책으로 경작금지, 농산물 출하를 중지하였으며 토양오염 등 2차오염 대책을 수립하였다. 지진해일로 인한 농약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쌀에서 세습농도가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농약수요는 2010년 19만4천톤(실물량)으로 금액으로는 3천2백4십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안전성 홍보활동으로는 일반소비자에 대한 세미나 개최, TV, 라디오, 잡지 등 각종 매체에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교육관계자에게 세미나 개최 및 정보를 제공하고 보도관계자와 농약에 관한 정보교환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매주 목요일 “야채 Lovers” TV프로그램을 통해 농약의 역할과 안전성, 유기재배와 관행재배의 차이, 농약의 공헌 등에 대해 퀴즈 형식으로 소개함으로써 큰 호응을 받고있다고 소개하였다.

대만구식품보호공업동업공회(TCPIA)는 정세보고를 통해 2010년 농약판매량은 7,851톤(a.i.), 금액으로 6,851백만위안이었으며 농약등록은 유형별로 529품목이 등록되어있다고 밝혔다.

또 2009년 포장시험기준 개정에 따라 국내

포장시험만으로 등록신청되었던 것이 GAP에 의한 국외성적도 가능하도록 하고 최소한 1개 포장시험만 국내에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관련 행정동향으로는 농산물 잔류검사를 강화해 채소, 과실 1만7백건, 차류 3천건, 쌀 800건 등 총 3십3만건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 농산물생산이력제도를 추진하고 2010년 까지 ISO 인증을 취득한 인증기관은 13개소로 인증대상은 일반작물, 유기작물, 가공작물 등으로 약 39억 NT달러의 생산이력농산품이 판매되었다.

또 오후에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대만동식물 검역소 Wen-Chi Fei 박사의 “Pesticide Usage Extrapolated to the Grouping Crops and Pests in Taiwan.”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GAP에 의한 외국포장시험의 인정, 6개로 분류된 작물그룹화와 대표작물 선정 등 대만에서 시행되고 있는 작물그룹화와 외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수년간 각국의 작물보호협회장을 역임하면서 3국의 산업발전과 우호증진에 공헌한 한국의 염병만 전회장(동방아гро 대표이사)을 비롯하여 일본협회의 Shukichi Ohuchi 전회장(일본농약 회장)에게, 대만협회의 Cheng, D. J 전회장(Chia Tai Enterprise)이 각각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한편 제28회 3국 자매회의는 일본농약공업회(JCPA) 주최로 내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㉞